

대학생의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과 심각성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태형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An Exploratory Study on the Perceived Susceptibility and Severity of University Students about COVID-19

Tae Hyeong Kim

Dept. of Social Welfare,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 집단의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개인이 가지는 코로나19에 대한 취약성, 심각성 인식 수준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강원도 및 천안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0년 5월부터 9월 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63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집단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대중매체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비율이 51.6%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적인 코로나19 증상, 손 씻기 방법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인지하고 있었으나, 보건의료기관 방문 요령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다른 문항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각된 취약성에서는 개인은 물론 가족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관련 정보를 획득할수록 개인의 취약성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지각된 심각성에서는 코로나19는 신체적, 심리적, 학업성적 등의 순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대학생 대상의 효과적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cognition level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on COVID-19 among college students and check individuals' recognition level of vulnerability to COVID-19 and the associated risk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n online survey of college students in Gangwondo and Cheonan from May to September, 2020. A total of 163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our analysis.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college student population, the percentage acquiring information on COVID-19 via mass media was the highest at 51.6%. Although they were aware of general COVID-19 symptoms and hand washing methods, it was found that the percentage of students aware of the need to visit health care institutions was somewhat lower than that of other cases. Second, in perceived susceptibility, not only individuals but also their families thought that they would not be safe from COVID-19. Moreover, as they acquired more related information, their cognitive degree of personal vulnerability got higher. Third, in perceived severity, the students recognized that COVID-19 affected individuals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and the study also suggested that their trust in government policy was high.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intend to suggest practical and policy measures for the effective prevention of COVID-19 among University students.

Keywords : Perceived Susceptibility, Perceived Severity, Exploratory Study, University Students, COVID-19

이 논문은 2021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Tae Hyeong Kim(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mail: sodoi2001@naver.com

Received August 3, 2021

Accepted December 6, 2021

Revised September 1, 2021

Published December 31, 2021

1. 서론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시기는 매우 인상적으로 기억될 것이며, 인상적이라는 개념은 애석하게도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으로 해석될 것이다. 이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때문이며 코로나19 초기 상황에서는 현재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리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보건·질병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팬데믹(Pandemic) 상황을 예상하기도 하였으나 적어도 일반 국민들은 직장, 사회, 문화, 교육 등 우리 삶의 전 영역[1]에서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줄은 미처 예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코로나19는 2019년 말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원인불명의 폐렴 원인을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이라 보고[1,2]하면서 그 존재가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코로나19는 숙주세포와 유연한 결합력을 가지는 특징으로 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으며 무증상 잠복기에도 감염력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보고되고 있다[2-4]. 이러한 코로나19가 가지고 있는 감염력으로 인해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이 변화되었으며, 그 중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장 대표적인 삶의 변화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감염 통제 조치로 행사나 모임 등의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이다[5].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많은 변화들이 나타났다. 초, 중, 고, 대학에서는 대면수업이 금지되고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2,6]. 이는 수업 운영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전례 없는 변화를 야기하였고 학생은 물론 교사 및 교수들에게도 혼란을 주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은 대학생들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캠퍼스에 등교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수강하고 있으며 파트타임 일자리의 축소, 대외 자원봉사활동과 인턴 과정 및 수련 과정 참여의 제한 등 다양한 대학생활 영역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2,7]. 생애발달주기로 보면, 대학생 시기는 일생 중 가장 활동적이며 사회적 관계 형성 등이 활발한 시기이지만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제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관련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코로나19 상황을 가장 민감하게 체감하고,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령 집단으로 대학생 집단을 보고하고 있다[2,6]. 또

한 보건 및 의료적 관련 연구들에서는 20대의 활동력과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의 특성이 코로나19의 전파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집단으로 설명[8]하고 있어 해당 집단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 집단의 코로나 관련 생각 및 태도 등의 수준이 사회적 방역과 감염병 예방 및 퇴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여 대학생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편 대학생 시기는 신체적으로 가장 건강한 시기로 개인이 지각하는 건강 상태가 가장 양호하고 신체적인 활력 수준이 높은 시점이라 할 수 있다[8,9]. 반면, 흡연, 음주, 불규칙한 생활 습관 등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에 노출되거나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9]이기도 하며, 건강행동에 대한 의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보건 및 예방의학에 대한 관심이 낮은 집단으로 보고되기도 하고 있다[8,9]. 이는 코로나19의 감염력과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대학생의 이러한 특성이 질병의 전염과 특정 집단의 사망률을 높이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국내 코로나19의 고령층 치명률에서 80세 이상은 18.6%를 보이는 반면 20대와 30대는 0.01~0.03%를 보이고 있는 점[8,10]은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해주는 통계라 할 수 있다. 이에 사회적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대학생 집단의 코로나19 관련 지식수준이 사회적 방역에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며 이를 중심으로 그 수준을 확인할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해서는 대학생 집단의 올바른 건강행동에 대한 인지수준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상황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대학생이 인지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정보 획득 경로, 올바른 정보 인지 정도 등을 중심으로 그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건강신념모델(HBM: Health Belief Model)을 중심으로 대학생의 건강행동 및 사회적 방역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건강신념모델은 개인이 가지는 신념과 건강행동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모델[11]로 인지적 관점에서 개인의 건강행동 의사결정을 설명한다. 건강신념모델은 지각된 위협(perceived threat), 행동 평가(behavior evaluation), 행동 계기(cue to action) 등의 개념으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는 이 중 지각된 위협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지각된 위협은 질병의 위험이나 위험성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말하며[12], 건강신념

모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동시에 질병에 대한 직접적이고 원초적인 개인의 인지와 관련된 개념이기에 코로나19 초기 상황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지각된 위협은 지각된 취약성(perceived susceptibility)과 심각성(perceived severity)의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각된 취약성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주관적 지각을 말하며, 지각된 심각성은 질병에 걸리거나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 심각성에 대한 느낌으로, 신체적, 가족생활, 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한다[13]. 이러한 지각된 취약성과 심각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실제 예방수칙의 증가[14]나 감염 예방행동에 정(+)인 영향[12,15]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신념모델의 개념 중 지각된 취약성과 심각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자의 그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더불어 건강신념모델에서는 개인적 신념(지각된 위협, 행동 평가, 행동 계기)이 개인행동으로 가는 관계에서 수정요인으로 연령, 성, 민족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이 작용함을 설명하고 있으며[14], 성별에 따라 질병에서의 민감성연구 결과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9]되고 있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연구 대상자와 수집된 자료의 특성(성별, 학년별)을 고려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지각된 취약성과 심각성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연구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연구 문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코로나19 정보에 대한 주요 인지경로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코로나19에 대한 올바른 정보 인지 수준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대학생의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과 심각성 수준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대학생의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과 심각성 수준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의 대상은 강원도 및 천안지역의 대학생이며, 조사는 2020년 5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

되었다. 설문조사는 설문지 배포 전 연구 취지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총 165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으며, 이 중 연구에 부적합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6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2 측정도구

2.2.1 코로나19 관련 변수

코로나19와 관련한 변수로는 코로나19 정보 입수 경로, 코로나 관련 지식 인지 정도에 대해 그 수준을 측정하였다. 정보 획득 경로는 가족, 친구, 학교 및 교수, 대중매체(TV, 인터넷, SNS), 병원 및 보건소, 기타 등으로 분석하였으며, 경로에 대한 문항은 중복 선택할 수 있는 다중응답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코로나19에 대한 올바른 정보 인식 수준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16]의 안내 자료를 토대로 손 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증상, 사망률, 의료 시설 이용 관련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으며, 본 문항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위해 보건 및 사회복지 전공 교수 1인, 의료 전문가 1인에게 해당 문항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응답은 범주는 ‘맞다.’, ‘아니다.’, ‘모른다.’로 조사하였다.

2.2.2 지각된 취약성, 심각성 변수

코로나19에 대한 개인의 위협 인지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코로나 19에 대한 개인의 지각된 취약성과 지각된 심각성을 통해 그 수준을 측정하였다. 본 문항은 Becker(9174)가 개발하고 김광희(2017)가 수행한 연구를 토대로 김준배(2019)가 사용한 건강신념 문항[17]을 코로나19의 특성과 연구 대상자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의 지각된 취약성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13이었으며, 지각된 심각성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76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은 총 5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19에 취약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점수화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주위에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에 대한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와 우리가족은 코로나19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Crobach's α .74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코로나19의 지각된 심각성에 대한 문항은 총 5문항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영향력을 높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문항은 '심리적으로 힘들 것이다.', '신체적으로 힘들 것이다.', '학교생활과 친구관계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가족 관계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Crobach's α .743으로 확인되었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SPSS WIN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분석 방법으로는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및 지식 등의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 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코로나19에 대한 개인의 취약성, 심각성 정도에 대한 지각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위 개인의 지각수준에 대한 일반적 특성(성별, 학년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63			
	Spec.	n	%
Gender	male	52	31.9
	female	111	68.1
Age	M= 20.35 SD=2.190		
Grade	1	74	45.4
	2	5	3.1
	3	54	33.1
	4	30	18.4
Major	Humanities	28	17.2
	Social Science	129	79.1
	Science& Engineering	6	36.7

Residence type	With family	131	80.4
	With relatives	0	0.0
	Lodgings	28	17.2
	Dormitory	4	2.4
House income	Less than 1million won	1	0.6
	Less than 1~5million won	33	20.2
	Less than 5~9million won	42	25.8
	Over 9million won	10	6.1
	I don't know	77	47.3

3.2 코로나19 정보 인지 경로 및 지식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어느 경로를 통해 획득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주로 대학생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대중매체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비율이 51.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가족 23.4%, 친구 14.1%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로 인한 활동 제한으로 인해 정보를 획득하는 장소가 '집'이라는 공간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SNS 등 모바일을 통한 정보 획득에 익숙한 대학생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보다 자세한 분석결과는 아래 Table 2와 같다.

Table 2. Knowledge Acquisition Path of COVID-19

n=163		
Spec.	N	%
Family	73	23.4
Friend	44	14.1
School, Professor	22	7.1
Mass media	161	51.6
Hospital & Public health	10	3.2
etc	2	0.6
All	312	100

다음으로는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해당 문항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있는 코로나19관련 자료의 내용을 사용하였다. 이에 각 항목에 대해서 '맞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코로나19에 대한 각 항목에서 '기침 호흡기 증상 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의 문항에서는 100% 비율로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의 문항에서는 '코로나19 주요 증상은 발열, 인후통, 호흡기 증상, 기침 등이다.' 98.2%,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으면

예방할 수 있다.’ 97.5%, ‘코로나19가 의심될 때는 관할 보건소 또는 1339로 상담을 요청한다.’ 97.5%의 순서로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응급실이나 대형 병원을 방문하면 안 된다.’의 문항에 올바르게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82.2%로 확인되었으며, ‘의심증상이 있을 시 1~2일 정도 자택에서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에 대한 문항은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59.5%로 다른 문항들 보다 상대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보들은 특히 전염병 초기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기능과 관련된 내용 이므로 국민이 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대학생들의 올바른 정보 인식률이 비교적 낮다는 점은 방역 초기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올바른 이용에 대한 정보제공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분석결과는 아래 Table 3에 제시하고자 한다.

Table 3. Knowledge of COVID-19

Question	n=163		
	yes n(%)	no n(%)	etc n(%)
1. It can be prevented by washing your hands with soap and running water for at least 30 seconds.	159 (97.5)	2 (1.2)	2 (1.2)
2. When coughing, you should apply it to your sleeve, not your hands.	157 (96.3)	2 (1.2)	4 (2.5)
3. Those with respiratory symptoms such as coughing must wear a mask.	163 (100)	0 (0.0)	0 (0.0)
4. The main symptoms of COVID-19 are fever, sore throat, respiratory symptoms, and cough.	160 (98.2)	0 (0.0)	3 (1.8)
5. If you suspect COVID-19, ask for advice at the local public health center or 1339.	159 (97.5)	0 (0.0)	4 (2.5)
6. The initial symptoms of COVID-19 are similar to those of a cold.	154 (94.5)	2 (1.2)	7(4.3)
7. If you have any suspicious symptoms, do not go to the emergency room or large hospital right away.	134 (82.2)	9 (5.5)	20 (12.3)
8. Older people and people with underlying medical conditions may become serious.	154 (94.5)	0 (0.0)	9 (5.5)
9. If you have any suspicious symptoms, you should observe the progress at home for 1 to 2 days.	97 (59.5)	33 (20.2)	33 (20.2)

3.3 코로나19 지각된 취약성 및 심각성 인식

연구대상자인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개인의 지각된 취약성 정도와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보았다. 코로나19에 대한 개인의 지각된 취약성 수준은 5점 만점에 3.11점으로 분석되어 보통인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취약성에 대한 문항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결과, ‘나와 우리가족은 코로나19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는 76.7%, ‘코로나에 대한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들으면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다.’는 62.0%, ‘나는 내가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46.0%, ‘주위에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22.7%. ‘나는 다른 사람보다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9.6% 순으로 취약함을 인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코로나19에 응답자 개인은 물론 우리 가족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 들을수록 개인의 취약성에 대한 지각정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보다 자세한 분석결과는 아래 Table 4에 제시하고자 한다.

Table 4. Perceived Susceptibility to COVID-19

	n=163				
	very poor	poor	average	good	excellent
1	30 (18.4)	59 (36.2)	37 (22.7)	34 (20.9)	3 (1.8)
2	19 (11.7)	27 (16.6)	42 (25.8)	61 (37.4)	14 (8.6)
3	37 (22.7)	62 (38.0)	50 (30.7)	13 (8.0)	1 (0.6)
4	10 (6.1)	12 (7.4)	40 (24.5)	72 (44.2)	29 (17.8)
5	2 (1.2)	7 (4.3)	29 (17.8)	73 (44.8)	52 (31.9)
M= 3.11, SD= .718					
1. I think there are people around who have COVID-19.					
2. I think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 will get COVID-19.					
3. I think I am more likely to get COVID-19 than others.					
4. When I read a book or hear a information about COVID-19, I think that I can also get COVID-19.					
5. I think that me and my family should be especially careful about COVID-19.					

다음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에 대한 지각된 심각성 정도를 살펴보았다. 이는 개인이 코로나19에 대하여 지각하고 있는 심각성 정도를 보여준다고 하겠으며,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신체적, 사회관계, 가족관계, 학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심각성은 평균 3.77점으로 평균 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으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신체적 영향 84%, 심리적 영향 81%, 학업성적 영향 72.4%, 사회관계 63.9%, 가족관계 43.0% 순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응답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신체적인 영역과 심리적인 영역에서 코로나19가 심각하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더불어 비대면 수업 전환으로 인한 학업 성적의 영향을 걱정하고 있고 학과 및 동아리 활동 등과 같은 대학생활 제한으로 인한 사회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임을 지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분석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고자 한다.

Table 5. Perceived Severity of COVID-19

n=163					
	very poor	poor	average	good	excellent
1	6 (3.7)	10 (6.1)	15 (9.2)	64 (39.3)	68 (41.7)
2	3 (1.8)	3 (1.8)	20 (12.3)	76 (46.6)	61 (37.4)
3	10 (6.1)	20 (12.3)	29 (17.8)	63 (38.7)	41 (25.2)
4	26 (16.0)	34 (20.9)	33 (20.2)	42 (25.8)	28 (17.2)
5	6 (3.7)	15 (9.2)	24 (14.7)	66 (40.5)	52 (31.9)
M= 3.77, SD= .776					
1. It will be difficult psychologically (anxiety, depression, fear).					
2. It will be physically difficult (severe cough, high fever, shortness of breath).					
3. There will be many difficulties in school life and friendship.					
4. There will be many difficulties in family relationships.					
5. It will have a huge impact on your academic performance.					

3.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앞서 살펴본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 정도, 지각된 심각성 정도를 점수화해서 성별, 학년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각된 취약성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자신이 더 코로나19에 취약하다고 느끼고 있으며(5점 만점에 3.20점) 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p<0.05$)으로 확인 되었다.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심각성 인식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력을 더 민감하게 느

끼고 있으며(5점 만점에 3.87점) 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p<0.05$)으로 분석 되었다. 자세한 분석결과는 아래 Table 6에 정리하였다.

Table 6. Analysis of differences by gender

n=163					
Variable	group	n	M	SD	t
Perceived Susceptibility	male	52	2.94	.765	-2.134* (p=0.034)
	female	111	3.20	.683	
Perceived Severity	male	52	3.55	.903	-2.555* (p=0.012)
	female	111	3.87	.689	

하지만 학년을 두 그룹(그룹1= 1, 2학년, 그룹2= 3, 4학년)으로 구분하여 지각된 취약성과 심각성을 분석한 결과, 평균 점수에서는 그룹2(3, 4학년) 학생들의 지각된 취약성 수준이 조금 더 높았으며 지각된 심각성 수준에서는 그룹1(1, 2학년) 학생들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한 결과, 집단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세한 분석결과는 아래 Table 7에 정리하였다.

Table 7. Analysis of differences by grade

n=163					
Variable	group	n	M	SD	t
Perceived Susceptibility	group1	79	3.09	.725	-.246 (p=0.806)
	group2	84	3.12	.715	
Perceived Severity	group1	79	3.78	.697	.085 (p=0.932)
	group2	84	3.76	.848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성공적인 방역체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코로나19에 대한 올바른 정보 인식이 중요하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으며, 그 중 특히 대학생 집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관련 정책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집단이기에 이들에 대한 관련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초기 단계에서의 사회적 대응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겠으며,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대학생 집단의 지각된 취약성 및 심각성 정도는 코로나19 방역 및 전염병 예방 정책 형성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집단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대중매체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에는 가족, 친구의 순서로 확인되었다. 또한 코로나 19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손 씻기 행동(97.5%), 기침 방법(96.3%) 및 마스크 착용(100%), 코로나 주요 증상(98.2%)과 증상에 따른 상담 방법(97.5%), 중증 위험 대상자 등에 대한 정보(94.5%)는 응답자의 90% 이상이 올바른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의심 증상 시 보건 의료기관 방문 요령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82.2%로 다른 문항보다 다소 낮았으며, 의심 증상 시 자택에서의 경과관찰에 대한 정보는 59.5% 학생만이 올바른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보건 및 의료이용에 대한 정보제공에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는 의료체계의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활동력에 따른 전파력이 높은 대학생집단[8]은 보다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보다 쉽게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SNS 및 유튜브 영상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비대면 강의로 인해 학교 및 학과 홈페이지의 접속이 증가하는 것을 토대로 대학별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 집단의 지각된 취약성과 심각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먼저 취약성 수준은 코로나19에 나와 가족이 주의를 해야 한다고 지각(76.7%),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들으면 확진될 수 있다고 지각(62.0%)하는 순으로 취약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확진될 가능성(46.0%), 주위에 코로나 확진 자가 있을 가능성(22.7%), 타인과 비교하여 확진될 가능성(9.6%)에 대한 지각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지각된 심각성에 대한 분석 결과, 코로나19는 신체적, 심리적, 학업성적 등의 순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중 특히 지각된 취약성에 대한 결과를 보면, 대학생의 코로나19에 대한 나와 가족에 대한 일반적 수준과 정보를 통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대의 코로나19에 정보습득수준과 감염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30대, 40대,

50대, 60대 보다 높다는 선행연구의 보고[7]와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건강 행동에서 중요하며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여겨지는 개인이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에 대한 생각 및 타인과 비교했을 때 확진 확률에 대한 생각은 다른 문항에 비해 낮아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개인의 취약성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특히 20대의 코로나19의 전파력[8]을 감안했을 때 해당 집단이 가지는 질병에 대한 취약성 지각 수준은 사회적 방역의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18]. 이에 해당 집단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해당 대학 등이 연계하여 전염병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초기 상황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각 대학에서는 기숙사 등 집단 생활시설 중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자가진단 결과 확인, 비대면 강의 도구를 활용한 교육 및 강의 콘텐츠 제작 등이 전염병 초기 상황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및 중앙정부에서는 전염병 초기 단계에서부터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개인의 질병에 대한 위험성 지각정도를 높여 주체적으로 방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코로나19에 대한 취약성 및 심각성 지각 정도를 점수화해서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과 심각성에 있어서는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 보다 더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차이도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질병과 관련된 심리적 민감성은 여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9, 19]와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건강신념모델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수정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13]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학생 집단 중 상대적으로 질병에 대한 취약성을 낮게 지각하고 있는 남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보다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코로나19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질병에 대한 취약성 지각 수준을 높여 철저한 개인 건강행동 및 방역 준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여학생 집단의 지각된 취약성과 심각성 정도가 건강행동 및 개인 방역 외에 코로나블루 및 지나친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확장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대학 본부 및 학과 차원의 개인 생활 상담 및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프로그램[20]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지나친 심리적 두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포스트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등을 제안하면, 첫째, 본 연구가 현상의 기술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가 특정 지역 및 연령으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화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어 추후 보다 확대된 대상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구에 사용된 문항들 중 코로나19 정보 입수 경로, 지식 인지 정도에 대한 문항은 신뢰도 및 타당도에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보다 신뢰성이 검증된 문항을 통해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 인과적 관계를 추론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이에 관련 변수들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 형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건강신념모델의 구성 개념 중 지각된 위협 수준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그 외의 구성개념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사 시기에 비해서 현재는 코로나19가 1년여 지속되고 있는 시점이기때문에 해당 집단이 가지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인식 수준은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하겠다.

References

- [1] Ye. lin. Choi, "A study on the emotional experiences of child care teachers and changes in their daily routine in centers after COVID-19",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2, No.1, pp.253-279, 2020.
DOI: <http://doi.org/10.15409/riece.2020.22.1.12>
- [2] J. H. Kang, A. R. Bak, S. T. Han, "A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Lifestyle Change Experiences of Undergraduate Due to COVID-19 ",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rtry Association*, Vol.14, No.5, pp.289-297, 2020.
DOI: <http://doi.org/10.21184/jkeia.2020.7.14.5.289>.
- [3] J. H. Hyun, J. H. Lee, Y. J. Park, E. K. Jung, "Interim Epidemiological and clinical characteristic of COVID-19 28 cases in South Korea", *Weekly Health and Illness*, Vol.13, No.9, pp.464-474, 2020.
- [4] Zunyou, Wu., & Jenifer, M. M, "Characteristics of and Important Lessons From the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Outbreak in China: Summary of a Report OF 72314 Cases From the Chines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Vol.323, No.13, pp.1239-1242, 2020.
DOI: <http://doi.org/10.1001/jama.2020.2648>
- [5] Choi, Sunhwa, and Moran Ki. "Estimating the reproductive number and the outbreak size of COVID-19 in Korea." *Epidemiology and health* 42 2020.
DOI: <https://doi.org/10.4178/epih.e2020011>
- [6] D. Y. Oh, "Factors to Affect Real-Time Remote Class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Sustain Class of University Students1", *Global Creative Leader*, Vol.10, No.3, pp.79-107, 2020.
DOI: <http://dx.doi.org/10.34226/gcl.2020.10.3.79>
- [7] https://blog.naver.com/gri_blog/221960243039
- [8] Y. B. Kim, T. H. Yoon, A. R. Sosh, "Effects of COVID-19 knowledge, risk perception,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n preventive action intentions and preventive action practices i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38, No.1, pp.25-36, 2021.
DOI: <http://dx.doi.org/10.14367/kjhep.2021.38.1.25>
- [9] Y, H. Chung, N, S, Seo, S, H, Moon, "Related Factors in Health Promotion Behavior by Gender amo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for school health education*, Vol.12, No.2, pp.29-42, 2011.
<http://www.kdca.go.kr>
- [10] <http://www.kdca.go.kr>
- [11] K. Glanz, B. K. Rimer, and F. M. Lewi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2010.
- [12] J. H. N. Ko,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of Tuberculosis: Focused on the Health Belief Model", *The Graduate School of Sogang University*
DOI: <http://doi.org/10.15814/jpr.2012.16.1.148>
- [13] Inz K, Rimer BK, Viswanath K,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Theoty, Research, and Practice(4th ed)*, San Francisco: Jossey-Bass. 2008.
- [14] B. K. Lee, H. J. Oh, K. A. Shin, J. Y. Ko, "The Effect of Media Campaign as a Cue to Action on Influenza Prevention Behavior : Extending Health Belief Model",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Vol.10, No.4, pp.108-138, 2008.
- [15] D. Y. Hong, M. A. Jeaon, "Predicting Preventive Behavior Intention in COVID-19 Pandemic Context: Application of Social Variables to Health Belief Model",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1, No.5, pp.22-35, 2021.
DOI: <http://doi.org/10.5392/JKCA.2021.21.05.022>
- [16] <http://www.kdca.go.kr/index.es?sid=a2>
- [17] J. B. KIM, "Relationship among the Lifestyle, Health Belief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of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y: Application of Health Belief Model", *The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2019.
- [18] D. H. Lee, J. Y. Kim, H. S. Kang, "The Emotional Distress and Fear of Contagion Related to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MERS) on General Public in Korea",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der*, Vol.35, No.2, pp.355-383, 2016.

DOI: <http://doi.org/10.22257/kip.2016.06.35.2.355>

- [19] Y. M. Kim, "Relationships between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Maladaptation: Mediating Effects of Family Process and Gender Group Differenc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8, No.11, pp.209-237, 2011.
- [20] https://blog.naver.com/gri_blog/221978942434

김 태 형(Tae Hyeong Kim)

[정회원]



- 2010년 10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사회복지학 석사)
- 2019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사회복지학 박사)
- 2009년 2월 ~ 2010년 2월 : 서울 성모병원 호스피스센터 사회복지사
- 2020년 9월 ~ 현재 :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보건 및 의료사회복지, 청소년, 정신건강, 호스피스